

禪

한국불교
선원 70년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아이콘'

한국불교에서 '선(禪)'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크다. 특히 대표 종단인 조계종은 '선종(禪宗)'을 표방하며 종지 역시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으로 선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1700년 한국불교 역사에서 선법이 전래된 것은 도의선사가 821년(신라 헌덕왕 13년) 중국 선종 제6조 조계혜능의 선을 계승한 서당지장(738~817)의 인가를 받아 오면서 각 지역에 선문(禪門) 개설되고 그 뿌리를 내리게 됐다. 고려시대에는 지눌 스님(1158~1210)이 대혜 스님(1089~1163)이 제창한 간화선을 도입하고 송광사를 중심으로 정혜결사를 전개하면서 간화선을 수행체계로 삼았다. 이후 8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 수행과 문화의 전통은 한국불교의 '아이콘'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격량의 근현대... 선원의 증흥

조선시대의 송유역별 정책 안에서 간화선의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왔다. 다만, 당시 선원의 수행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기록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얼마나 많은 선원에서 수행자들이 정진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근대 자료를 통해 선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1935년 <선원지>에는 22곳의 선원에서 368명의 수좌가 정진했고, 1942년에는 68곳의 선원에서 하안거 대중이 505명, 동안거 대중이 340명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해방 공간부터 1960년대까지 불교는 6.25 한국전쟁과 정화운동이라는 시대의 격랑을 맞이하게 된다. 6.25 한국전쟁으로 사찰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사찰 경제에는 피해해졌다. 이승만 대통령의 시작된 정화불사는 불교계는 비구-대처 갈등으로 접어들었다. 선원의 기록인 '방함록'도 제대로 발간되지 못했다.

하지만 통합종단이 출범하고 승려교육을 통한 청정 수행가풍을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히 일어난다.

대표적인 것이 1967년 선림회의 발족이다. <대한불교> 1967년 4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선림회는 4월 14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선림회는 총림 운영, 선풍 진작, 조직 운영에 대한 건을 논의했고, 초대회장으로 석암 스님을 추대했다. 또한 선림회는 '순수한 선객들의 모임으로 선사상이 철저한 본분납자로 20~60세의 비구·비구니'를 회원 자격으로 했다.

이들은 창립대회에서 "선 사상을 배양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납자의 단합을 촉구와 반성, 근신으로 상좌에게 순응하면서 자기 수행을 착실하게 하고 중도적인 길에서 총림을 실현시키자"고 선언하기도 했다.

선림회는 선풍진작을 위해 총림 개설을 추진해 해인총림의 조속한 운영을 주장했고 송광사의 조계총림, 용주사의 중앙 선원의 설립을 추동하였던 것이다. 또한 1967년 동안거부터 수행에 참여한 대중의 명단을 취합해 전국적인 방함록을 발간해 배포했다.(김광식, '방함록에 나타난 근현대선원')

1970년부터는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에서 전국 선원 자료를 모아 방함록을 발행했으며, 1994년 종단 개혁과정에서 전국 수좌회가 결성되면서부터는 수좌회가 방함록 발간을 1996년부터 책임지고 있다. 방함록은 한국 선종사의 단면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들이 담겨 있다. 실제 조계종 교육원이 2000년 발간한 <선원총람>과 전국선원수좌회의 <방함록> 등을 살펴보면 1983년부터 현재까지의 안거 현황을 잘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불교의 선원과 수행의 외연이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짐작케 한다.

실제 1980년대는 방내 대중이 700~800명 선이 었지만, 1990년대로 넘어가면 방내 정진 대중 수는 1000명을 넘어가며 1990년대 후반에는 1600명 수준에 이른다. 안거 대중 수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1900~2200명이 매년 안거에 동참하고 있다. 2014년 동안거에는 2196명이 참여해 겨울 한철을 정진했다.

선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왔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방함록에 나타난 근현대 선원'에 따르면

정화운동 이후 통합종단 출범하며 무문관 개원 등 선수행 열기 확산 불교 전통 안거 문화 그대로 계승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방부 늘어 간화선 대중화 위한 노력도 이어져

1969년 안거 수행에 임원 선원은 39곳이었고, 1970년대에는 16개 선원이 새롭게 문을 열어 전국적으로 42~52개소에 달하기도 했다. 1980년대 선원 추이는 <선원총람>을 보면 알 수 있다. 1983년 하안거에는 32곳의 선원에서 정진을 했지만 1990년 하안거에는 선원 56곳에서 정진에 들어갔다. 2000년 무렵에는 70여 곳의 선원에서 안거 정진이 이뤄졌고, 현재는 전국 98개 선원에서 납자들이 안거마다 정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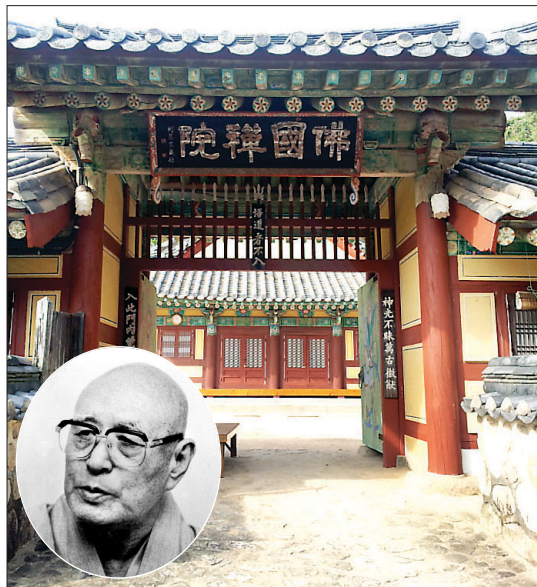
선원 증가와 불교 발전

근대선원의 최초는 해인사 퇴설선원으로 1899년 11월 동안거에 경허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17명의 정진대중으로 개설됐다. 이후 경허 스님은 바로 범어사를 돌려 다시 통도사 백운선원으로 가서 1900년 보광선원을 개설했다. 경허 스님을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꼽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해방 직후 한국불교의 선풍진작을 위한 대표적 사건은 봉암사 결사의 시작이다. 성철, 청담, 자운 스님



월정사 만월선원에 동안거 방부를 들인 납자들이 수행 정진하고 있다. 안거 수행이라는 불교 전통을 한국불교는 오랫동안 지켜내고 있다.



불국사 불국선원 입구. 현재 사격은 선원 조실이자 전조계종 총무원장 월산 스님(동근 사진)에 의해 완성됐다.



고불총림 백암사 운문선원에 방부를 들인 수행 납자가 게으름을 보이자 선원 유나 스님이 장군축비로 경책하고 있다.

들은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오로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정신으로 '공주(共住)규약'을 정하고 이를 따라 실천하는 스님들만 방부를 같이 정진했다. 처음은 성철, 자운, 보문, 우봉, 청담 스님으로 시작해 향곡, 월산, 혜암, 법전, 성수, 종수, 지관 스님 등 20여 명으로 늘었고, 비구니 묘연, 묘찬, 지영, 재영 스님 등은 백련암에서 참여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단됐지만 그 후 1970년 초부터 다시 수좌들이 봉암사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불교신문>에 따르면 봉암사 회암선원은 1972년 향곡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15명의 납자가 정진했다. 이후 1974년에 서용 스님이 조실을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78년까지 향곡스님이 줄곧 조실 역할을 하면서 납자를 제정했다. 1982년 6월 종단은 봉암사를 조계종 특별 수도원으로 지정하여 성역화 의지를 표명했고 1984년에는 종립 특별선원으로 지정했다. 봉암사 결사의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하고 산문을 절대 열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정화불사가 마무리되는 1960년대 이후에는 선원들의 중창과 개설이 많이 이뤄졌다. 불국사 불국선원은 1974년 향곡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대중안거에 들어갔고 전조계종 총무원장 월산 스님이 공사비 1억 원을 들여 1976년 불사를 진행해 현재의 사격을 완성했다. 불국선원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범룡, 송담, 일타, 법달, 정일, 혜정 스님 등 명안종사가 선풍을 드날렸다.

현대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금오선원을 1975년 개설했다. 해운정사 선원은 상선원과 하선원, 시민선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금오선원 큰방인 상선원은 수좌 스님들이 새벽 2시 30분 기상해 참선에 들어가 11시간 가행정진 중에 있으며, 하선원은 재가선원으로 재가자들이 납자들과 마찬가지로 안거에 들어 8시간 정진한다. 시민선방은 사찰 내 원통보전에 자리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일반 불자들이 참여 정진을 하고 있다.

만공 스님의 제자 혜월 스님의 법을 이은 전강 스

님의 유지를 이은 선원은 용주사 중앙선원과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이다. 용주사 중앙선원은 1969년 동안거 결계를 가지면서 첫발을 내딛었다. 전강 스님 제자 송담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용화사 법보선원은 1963년 전강 스님에 의해 창건됐으며 비구 선원, 보살 선원, 시민 선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현대 비구니 선지식 인홍 스님이 1957년 창건한 석남사 정수선원도 한국 선원 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1957년 개설된 석남사 정수선원은 1963년부터 3년 결사를 진행했으며, 1999년 조계종립 비구니 특별선원으로 지정됐다.

봉암사와 마찬가지로 산문을 폐쇄하고 정진하는 비구니 선원도 있다. 영화 <귀요미>로 알려진 은혜사 산내 암자 백홍암이다. 백홍암은 1981년 도강 육문 스님과 영운 스님이 폐사 직전의 백홍암을 맡으면서 불사를 진행해 당해 동안거부터 대중에 받았다. 언젠가 비구니 스님 수십 명이 방부를 들고 노동과 수행을 병행하고 있으며, 부처님오신날과 백중을 제외하고는 산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mm

- 방수연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 방수전선-50c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 방수전선-2m**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 비닐만월등**
할인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cm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cm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옅분홍/주황색
- 전구(10W) @ 250원**
1BOX : 100개
제조원: 베트남
- PVC영가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계부착 20,000원
크기 : 8.5cm×21cm
-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계부착 20,000원
크기: 8.5cm×21cm • 신분홍, 연분홍
-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할인가 6cm 3,500원
8cm 4,000원
10.5cm 4,500원
12cm 10,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 수 있음.
-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할인가 8cm 27,000원
10.5cm 38,000원
*1묶음당 50개를 만들 수 있음.
- 플라스틱 등표연결집계**
할인가 15,000원(100개)
• 연두색 / 흰색 중 선택
- PVC등표 전용펜**
할인가 2,000원
• 제조사: 사쿠라(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 수 있는 양면 펜.
(*감정색)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등(6cm) @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cm) @ 3,200원 (30개이상)**
- 바림등(10.5cm) @ 6,000원 (16개이상)**
- 바림등(13cm) @ 13,000원 (6개이상)**
- 바림등(20cm) @ 35,000원 (2개이상)**
- 바림등(30cm) @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cm) @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cm) @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cm) @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cm) @ 15,000원 (6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등철사(100개)**
6cm 75,000원 / 8cm 80,000원
10.5cm 85,000원 / 12cm 100,000원
- 일반연일(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 바림연일/한지바림연일 7,500원 / 9,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 천바림연일 30,000원**
진분홍/주황/빨강/연분홍/보라
수량 : 약 1,200장

禪

한국불교
선원 70년

오늘도 화두 들고 은산철벽 부수기



계룡산 대자암의 무문관 '삼매당'의 전경. 1993년 문을 연 대자암은 천축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무문관이다.

'문없는 문' 무문관 수행

무문관(無門關)은 한국불교 활발한 선풍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전통이다. 무문관은 아무나 들 수 없는 곳으로 법랍이 높은 스님들이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깨달음을 얻고자 문을 닫아걸고 용맹정진한다. 현대불교사에서 무문관을 처음 개설한 곳은 서울 도봉산 천축사다. 1964년 당시 주지였던 정영 스님은 선객들이 참선도량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듣고 무문관의 필요성을 절감, 처음으로 천축사에 공식적인 무문관을 개설했다.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본받아 6년 결제에 들어갔는데, 2회차를 마친 후 1979년까지 100여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었지만 기한을 제대로 채운 스님은 그리 많지 않아 2회만에 중단됐다. 너무나 규칙이 엄했기 때문에, 보문·관음·구암·제신·현구·지효·경산·도천·관목·천장·도영·석역·무불·원공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만이 이름을 남겼을 정도다. 이들 중 6년 기한을 채운 스님은 3명에 불과하다. 1회 때는 관음, 제신 스님이, 2회 때는 구암 스님이 원만회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년에는 계룡산 대자암에 무문관 선원 '삼매당'이 개설됐다. 천축사에 처음으로 무문관 수행 기풍을 세운 정영스님이 20여년의 정성으로 조성했다. 1994년에는 제주도 남극선원에 무문관이 개설됐다. 이곳의 수행자 법랍은 평균 20년이상으로, 정진력을 검증받지 않고는 입방이 힘들다.

1998년 여름에는 설악산 백담사에 '무금선원'이란 이름으로 무문관이 생겼다. 비구계를 수지하고 10안거 이상을 지낸 스님만이 들어갈 수 있다. 2000년 4월부터 3년 과정으로 5안거 이상을 지낸 9명의 스님이 정진결제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조실인 설악 무산 스님이 직접 무문관에 입방해 동안거 기간동안 정진했다. 또한 백담사 무금선원은 종립 기본선원으로 신참 납자들이 방부를 들고 안거 정진한다.

2002년 4월 10일에는 강진 백련사(주지 헤일)도 처음으로 무문관 입제 방부를 받았다. 1억5천여만원

의 예산으로 건립된 무문관(만덕선원)은 건평 40평에 5개의 독방이 갖추어져 있으며, 욕실과 철저한 방음시설 등을 갖춰 오랜 기간의 무문관 수행에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한국불교대관음사 감포도량 무일선원에 도 무문관이 개설됐으며, 현재 회주 우학 스님이 무문관 정진 중이다.

한국 선불교 세계화위한 선원

한국불교의 간화선의 선풍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시도도 꾸준히 이뤄져왔다. 승보사찰 조계총림 송광사의 방장이었던 구산 스님은 1973년 하안거부터 한국 최초의 국제선원인 '불일국제선원'을 개원해 한국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과 해외 스님들에게 한국 선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앞장섰다.

외국인으로써 송광사에서 출가 수행했던 사람 중에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 교수 로버트 버스웰(법명 혜명)이 유명하다. 이후 버스웰 교수는 보조국사의 영문 법어집을 비롯해 최근에는 불교영어사전을 펴내는 등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은 1989년 기공식을 열고 1992년 3월 한국불교 세계화의 거두였던 송산 스님이 개원했다. 이후 국제선원은 외국인 스님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면서 선 중심의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입임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에는 외국인 행자교육원이 개원됐다.

2000년 3월에는 계룡사 무상사 국제선원이 창건됐다. 무상사는 매년 최소 300여명의 외국인들이 무상사 국제선원을 찾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의 불교단체와 100여개 이상의 세계각지의 센터에서 무상사를 찾아와 수행하고 있다.

강화 연등국제선원은 외국인 불자를 위한 전문 선원으로 1997년 9월 28일 성철 스님의 주재하에 원명 스님이 개원했다. 1980년도 초에 스페인카와 영국에



한국 선불교를 대중에게 알리는데 일조한 학회지와 저술들

서 유학한 원명 스님은 유럽에 한국불교가 거의 전무한 사실을 알고 국제포교의 서원을 세웠다. 이후 국제포교를 위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불교 기초교리 강좌, 영어로 불교 경전 공부하기, 참선강좌, 한국문화 배우기 등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선원을 건립하게 됐다.

이밖에도 인도의 롬비니 석가선원, 하와이 대원사 선원, 신원사 국제선원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불교의 간화선을 알리기 위한 선원들이 창건돼 활동해 오고 있다.

禪 전문연구 '활성화'

한국불교 선 수행은 더 이상 사찰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 재가 선원이나 시민선방은 1990년대 이후 많이 대중화됐으며, 전문적 학문 연구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

前 동국대 교수 성본 스님은 자신이 설립한 한국선문화연구원을 통해 선 관련 학술서와 대중서를 비롯해 대중경전과 어록, 선학, 선문학, 선문화, 선과 다도 등을 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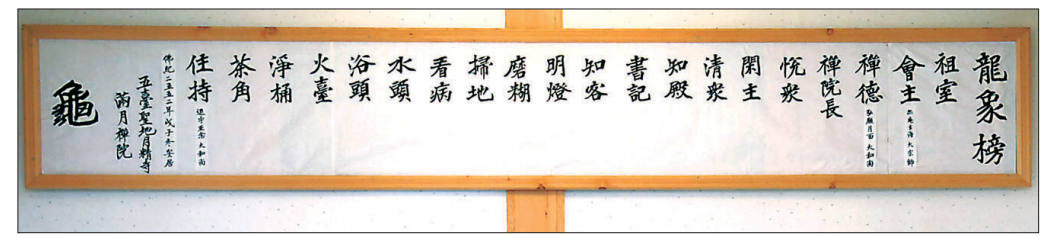
2000년 3월에는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가 정식으로 창립됐다. 앞서 열린 2월 열린 발기인 모임에는 현각 스님, 법산 스님, 종범 스님, 성본 스님, 권기중, 이평대 등이 참석해 창립을 논의했다. 발기인들은 당시 "선은 한국의 전통이자 고유사상이지만 깊이 있는 연구나 체계적 이론정립, 현대화, 생활화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서 "한국선학회를 창립해 한국선 전반에 대한 연구, 선학의 기초 이론에 대한 정리, 간화선 및 유패사나와 여타 명상법 등 수행방법에 대한 고찰,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교육 등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선적 해법의 모색, 이들이 종합한 선의 생활화, 나아가 한국선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등 모든 부분들에 대해 폭넓게 연구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선학회는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를 비롯해 매년 3회에 걸쳐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선학회 학회지는 2009년 12월 학술동지지로 승격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원 안거 문화 엿보기

말도 잠도 없이 오로지 참선 정진



월정사 만월선원의 용상방. 모든 구성원이 소임을 보는 독특한 문화를 보여준다.

한국불교의 선원은 남자들의 수행처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다. 특히 여름과 겨울 안거 기간에는 더욱 그렇다. 안거에 든 수좌 스님의 마음 가짐은 조계종 중정을 역임했던 성철 스님이 생전 해인사 수좌 스님들에게 강조했던 '수좌 5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성철 스님이 강조한 수좌 5계는 △잠을 적게 잔다 △간식을 탐하지 않는다 △경전을 보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등이다.

성철 스님의 '수좌 5계'는 매일 새벽 2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수좌 스님들의 일상 생활을 짐작케 한다. 음력 10월 15일부터 3개월간 계속되는 동안 수좌 스님들은 산문을 나서지 않을뿐더러 안거 기간 동안 책을 전혀 보지 않는다. 각자의 화두에 대해 의심하고 또 의심할 뿐 '삿된 생각'을 그냥 내려놓는 데 진력한다.

수좌 스님 10명에 달하는 작은 선방이나 40여명 이상의 큰 선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선원의 공통점으로는 수좌 스님들 모두가 '소임을 맡는다'는 것이다. 입제 하루 전 선방에는 소임을 기록한 '용상방'이 붙는다.

선방의 가장 큰 어른인 방장 스님을 비롯해 계율과 방사의 전체적인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입승'이 있는가 하면 수좌 스님들이 마실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수두'라는 소임도 있다. 대개 법랍이 적은 스님들은 청소를 담당하는 '정통'(淨桶)이나 '고두'(庫頭)라는 소임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각자의 소임에 관한 사항은 안거 입제 2~3일 전에 대중공사를 열어 결정한다.

선방의 의결구조는 대단히 민주적이다. 선방 곳곳의 청소가 잘 되고 있지 않거나 입선이나 방선 등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등 방사 운용에 관한 세세한 일은 발우 공양 후 대중공사 시간에 각자 생각을 담은 의견을 제시해 대중의 공의를 모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

수좌 스님들은 매일 두 차례 삭발한다. 매일 14일과 말일에 삭발하면서 용맹정진 발원을 되새기

고. 법의를 손질하거나 세탁하는 것은 오전 오후 방선 시간을 활용한다. 입선 50분에 포함 10분을 기본으로 하는 수좌 스님들의 하루 수행은 밤 10시면 소등과 함께 마무리된다. 그러나 소등 이후에도 대다수 스님들이 입선한 채 밤을 지낸다.

매제들이 발달하면서 선원 문화의 단면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있다. 1973년 <신동아>에 연재됐던 지허 스님의 <선방일기>는 1970년대를 전후한 선원의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사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생사의 판문을 돌파해야 하는 치열한 수행처인 '무문관'에 대한 기록들도 상당 수 있다. 월정사로 출가해 2002년 백련사 무문관에서 수행했던 동은 스님은 2011년 발간한 저서 <무문관 일기>

새벽 2시 일과 시작해 밤 10시 마쳐도 '수행' 모든 수좌가 소임 맡고 민주적으로 문제 풀어

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는 신비롭고 비밀스럽기만 여겨지는 스님들의 무문관 수행 일상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는 행동하는 양심이 부처임을 강조한 삼성 스님의 자서전으로 스님은 2004년 4월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에 입방해 수행하다가 2005년 3월 무상의 꽃 한 송이를 그려 놓고 열반에 들었다. 책은 스님의 치열한 치열한 삶과 수행을 전하고 있다.

정수용 PD가 발표한 '비구니의 세계 석남사(1979)'는 당시에는 낯설었던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문화를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BTN불교TV도 2008년 무문관 수행을 조명한 다큐 <무문관>을 DVD로 발매하기도 했다.

백홍암 비구니 스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던 이창재 감독의 영화 <길에서>는 불교계를 비롯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신성민 기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쫐**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 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남 : 010-5097-8291	익산 : 010-6610-2337	광주 : 010-6890-0365
울산 : 010-4597-5577	양산 : 010-6294-6126	진주 : 010-3583-7139
평창 : 010-6433-8612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제주도 : 010-3000-1945		

사찰 연등 및 전선(범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력·규격원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치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앵글 용품

일제앵글 S형 T번리앵글

LED제등앵글 LED홀더앵글 전선지초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